

복지관 소식

AI 돌봄로봇 [홍돌&홍순이]

“홍천희망로타리클럽과 손잡고” 홍돌&홍순이 선물



◇홍천희망로타리클럽 후원으로 독거어르신에게 홍돌이를 전달하는 모습.



◇홍돌&홍순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반응하는 AI돌봄로봇 어르신의 안전 및 일상생활관리 지원 인기

지난 9월초, 홍천군노인복지관은 홍천희망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독거어르신 4가정에 홍돌&홍순이를 선물했다.

홍돌&홍순이는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이 부르기 쉽도록 만든 명칭으로 정식명칭은 효돌&효순이이다.

홍돌&홍순이는 인형 내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어르신의 움직임 하나하나 감지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 및 일상생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식사시간 및 약 복용시간을 안내하고 말벗 서비스를 통해 인지활동이 지원됨으로서 어르신에게 인기가 높다.

코로나 때문에 이웃과 단절되어 있는 어르신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홍돌아~ 홍순아~”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

홍돌&홍순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김○○어르신은 금번 추석명절에도 코로나로 자녀가 방문하지 않기로 해서 많이 서운했는데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음성메시지를 전달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홍천희망로타리클럽 관계자는 홍돌&홍순이를 통해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희망의 벗으로 함께하며 고령화시대에 스마트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관계자는 홍돌&홍순이가 홍천군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댁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NTENTS



- 02 - 지역소식 : 홍천군펜싱협회
- 05 - 인물탐방 : 김명옥(풍물놀이 인생)
- 08 - 홍보&참여
- 03 - 기관탐방 I : 홍천군치매안심센터
- 06 - 홍천강 길따라, 맛따라
- 08 - 인생칼럼
- 04 - 기관탐방 II : 홍천군문화예술회관
- 07 -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홍천 펜싱의 역량 위한 용기와 힘이 되어줄 펜싱협회 창단



◇홍천군펜싱협회 (홍천여중고 펜싱부원들)

홍천군펜싱협회(회장 황경화)는 2021년 8월 2일 임원진과 함께 홍천여고 펜싱 연습실을 방문해 방학중임에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홍천여중고 펜싱부 선수들에게 빵과 음료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홍천군펜싱협회 황경화 회장

또한 홍천여중 신우숙 코치와 홍천여고 서정아 코치에게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길 요청하고 감사를 표했다.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는 홍천의 어린 선수들이 기특하고 대견하다며 어려움 속에서 펜싱협회가 창단된 만큼 회원들과 함께 학생선수들이 좀 더 기운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항상 펜싱선수들과 교류하며 시간을 쪼개어 크고 작은 후원자의 역할과 만남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펜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펜싱이란?

펜싱은 프랑스의 검술에서 유래한 스포츠이다. 원래 펜싱(fencing)은 그냥 검술을 의미하는 단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포츠로서의 펜싱을 의미하게 되었다.

전통무술로서의 펜싱과 스포츠로서의 펜싱은 펜싱(fencing)이라는 용어를 공유하게 되어 양자를 구분하여 부를 때는 서로 히스토리컬 펜싱(복원검술)과 모던 펜싱(현대검술)으로 부르기도 한다.

펜싱종목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법

◆사브르(sabre)-사브르는 우랄지방 출신의 기병들이 사용하던 무기에서 유래됨.

플뢰레, 에페와 달리 베기 또는 찌르기를 유효로 하는 경기이다. 공격을 우선으로 하고 방어자는 반격의 권리를 얻어 공격하게 된다. 공격 범위가 머리와 상체(허리뼈보다 위)이며 양팔도 포함된다.

◆플뢰레(Fleuret)=17세기 이탈리아에서 단순 훈련용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됨.

공격범위는 상체에 한정되어 있으며(얼굴과 머리·사지 제외)공격동작이 빠른 쪽이 반격의 권리를 얻는 특징이 있다. 이 공격권은 먼저 팔을 뻗거나 전진할 때 얻게 되므로 방어하는 편에서는 반드시 상대편을 전진 못하게 페인트를 주거나 상대편 칼을 한 번 쳐 줌으로써 공격권을 양도받게 된다.

◆에페(epee)=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 남자들이 하던 결투에서 기원함.

상대 선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표적이거나 플뢰레와 같이 찌르기만이 가능하다.

공격권이 없으면 찌르는 시간의 느리고 빠름에 따라 승점이나 패점을 얻게 되므로 상대방보다 먼저 찌르기만 하면 된다. 단, 1/25초 이내에 서로 동시에 찌렀을 경우(약송시물따레)는 양자 모두 승점을 얻게 된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홍천군 펜싱협회의 이모저모〉

- 2020년 12월 3일

강원도 홍천군체육회 산하 홍천군 펜싱협회 : 홍천 펜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창립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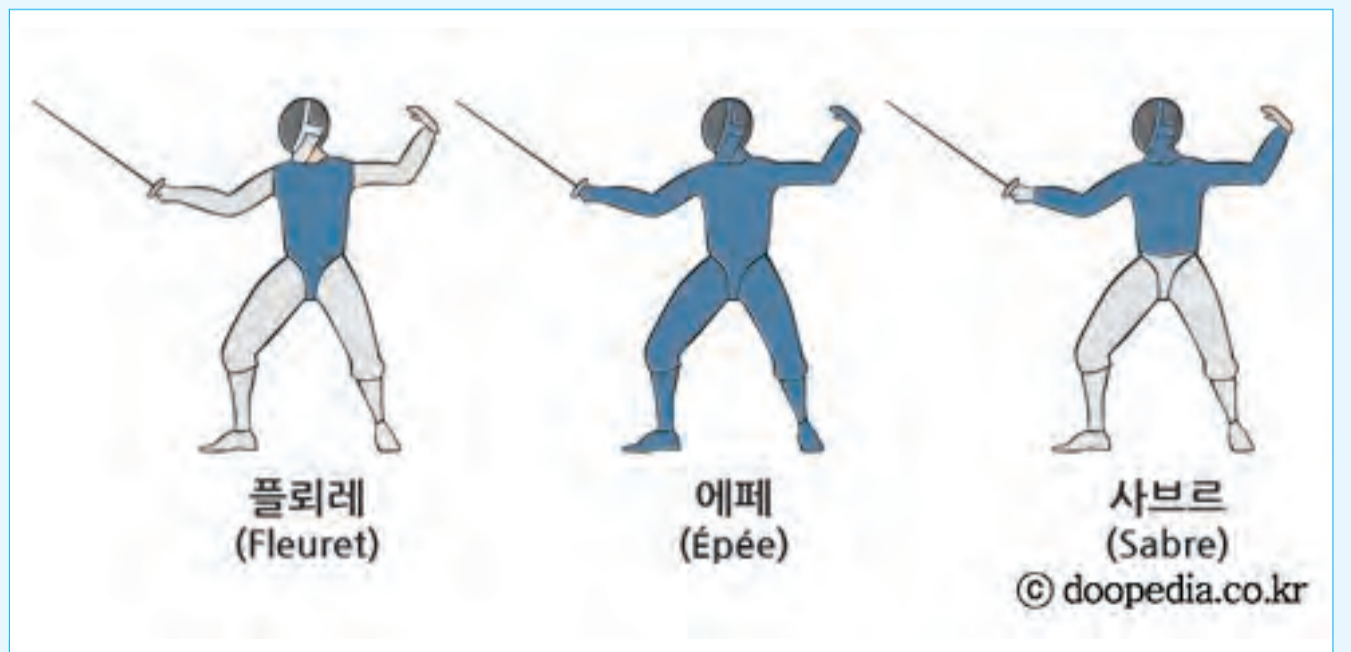
- 2021년 8월 2일

홍천군 펜싱협회(회장 황경화) 홍천여고 펜싱 연습실에 방문 : 홍천여중고 펜싱부 선수들에게 빵과 음료 전달하며 격려

〈홍천여중고 펜싱부의 이모저모〉

- 2021년 8월 21일

도쿄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김준호 선수가 홍천여중고에 방문 : 홍천여중고 펜싱부 학생들과 사인회 진행



© doopedia.co.kr

치매 조기검진 무료지원,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홍천군치매안심센터 직원들.



◇홍천군치매안심센터 이미성 팀장

치매환자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로 배회감지기 월 사용료를 지원한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이미성 팀장은 홍천지역이 워낙 지역은 넓고 노인인구가 많아 관리가 여의치 않은 점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역특성상 치매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진단을 받기가 여의치 않은 점에 착안 하여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치매진단 1:1 전수조사를 작년 두촌면에 이어 올해는 두 번째로 서석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 호응도가 매우 좋다고 한다.

치매는 학식, 지식, 재산 등과 무관하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인 만큼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다.

이미성 팀장은 이천 출신으로 강릉간호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도에 양양에서 간호직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1995년도부터 홍천군에서 복무하고 있고 2015년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2017년과 2020년 2회에 걸쳐 강원도지사상을 수상 한 바도 있다. 부군도 홍천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했다.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끝으로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치매를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다며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1.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온다.
2.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3. 언어 사용이 어려워진다.
4.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5. 판단력이 감소하여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6. 추상적인 사고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7.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8.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온다.

가족이나 이웃이 위와 같은 증상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치매상담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과 치료 받기를 권유한다.

*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033) 430-4032-3

전소열 기자(silverhong21@naver.com)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곳인가?

이번호에는 나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치매에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진행하는 홍천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살펴본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 및 그 가족을 상대로 1:1상담, 조기검진, 사례관리, 쉼터운영 등 치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안내하고, 유관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치매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홍천군의 치매안심센터는 홍천읍 신장대로 5의 홍천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매에 관련된 상담등록 및 조기검진팀 쉼터지원팀, 사례 및 홍보지원팀 등 3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둘째, 치매환자지원으로 치매상담 및 치매환자등록관리, 원격치매클리닉,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치매관리비지원, 호호물품지원(기저귀, 물티슈 등), 실종예방사업(지문사전등록,인식표,배회감지기 보급), 치매공공후견사업

셋째,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으로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가족카페 등을 운영하며

넷째, 지역사회 자원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째, 치매인식개선사업으로 치매 파트너,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치매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등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0세 이상의 홍천군 주민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1단계로 선별검사 2단계로 진단검사(신

경인지검사), 전문의 치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며 3단계 감별검사는 협약병원인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뇌영상 촬영 등을 진행한다.

치매 조기검진비 전액지원

조기검진 검사비용은 전액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한다. 만약 검진에서 치매환자로 판명되면 치매센터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해 치매치료관리비(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로 건강보험료납부기준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대상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하며 홍천군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치매환자 물품지원

특히 홍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에 필요한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방수시트, 방향제, 바다리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지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억력 훈련, 목적있는 활동, 신체활동, 워크북 및 인지교구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식표 배부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 길을 잃을 염려가 있는 치매환자에게 인식부를 배부하며, 인식표는 치매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리 부착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배회감지기 보급

또한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고 실종시 신속한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대상은 등록

홍천군민의 정서함양을 담당하는 홍천군문화예술회관



◇홍천문화예술회관 전경

공연, 전시 대부분 무료 관람 및 편의시설 갖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화예술회관 이용 가능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792

홍천문화예술회관 공간의 이모저모

공 간 : 공연장, 전시실
내 용 : 예술공연, 교육, 행사 등
문화예술부 : 033-439-5800
축제운영부 : 033-439-5854
행정지원실 : 033-439-5813

홍천문화예술회관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792번지에 소재하며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현 홍천군수이기도 한 허필홍이다.

공연 장르는 연극, 뮤지컬, 악극, 음악회, 아카데미 등이다.

좌석은 대공연장 447석이다. 연간 약 300-500여 회 공연 및 교육을 진행한다.

홍천문화예술회관은 1935년 3월 23일에 홍천군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개관하였다.

홍천군민과 홍천을 방문하는 기타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2대도 보유하고 있다.

전시실은 대전시실, 소전시실이 있다. 전시실에는 서예, 미술, 사진, 분재, 조소(공예) 기타 등을 전시한다.

관람료는 대부분이 전석 무료이나, 유료 관람은 1층 A석은 만 원, 2층 B석은 오천 원이다.

홍천군민만 관람이 가능하고 전석 무료이다.

예매방법은 전화(033-439-5831)로 문의하면 가능하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로 선정해 국민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



◇홍천문화예술회관 내부

(www.hccf.or.kr) 혹은 전화(033-439-5800)로 신청하여 문화예술 회관 규정에 의하여 허락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대관 가능한 시설은 공연장, 강당, 전시실, 미술관, 악기박물관 등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 예술에 참여할 수 있게 연중무휴이며 대여 받은 자는 2개월 전 전화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광명 기자
(shout1700@hanmail.net)

인물탐방

풍물놀이 인생 “김명옥” 찾아서

청강 김명옥은 풍물놀이 인생이다

고유의 민속놀이인 신바람나는 풍물놀이
바쁜 농사철에도 힘들고 지친 삶을 위로



◇회촌면 군업1리 경로당에 신바람 나는 풍물놀이를 배우기 위해 모인 군업1리 노인회원들.

풍물놀이는 그에게 삶의 한 축을 이루며 삶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풍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연의 관계라고 여겨진다. 점점 잊혀가는 우리의 고유한 풍물놀이가 사장되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풍물놀이를 보급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복지관으로 또는 요양원 그리고 경로당을 찾아 강습하고 있다.

이번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에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기반 조성 지원 사업으로 신나는 풍물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와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기획 공모 사업으로 홍천군 노인회에서는 회촌면 군업1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신바람 나는 풍물놀이를 신청해 김명옥 강사가 직접 강습하고 있다.

그의 열정의 풍물놀이 현장을 직접 구경하기 위해 군업1리 경로당을 찾았다. 오후 7시가 넘어서 신바람 나는 풍물놀이는 시작되었다. 농촌은 겨울의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늘 바쁘다고 한다. 군업1리 노인회 오흥만(82세) 회장께서 풍물놀이 연습에 들어가기 전 틈을 타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명옥 풍물놀이 강사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로 몇 년 전에도 경로당에서 지도를 받았으며 재미있게 잘 가르쳐 모두 즐거워한다고 했다. 장구가 20개 가까이 실내에 놓여 있었다. 코로나 19의 시국이라 거리 띄기로 놓여 있어 장구 앞에 앉으면 준비는 다 된다는 노인회장의 설명은 얼마 전

장구도 새로 구매했다고 한다. 이야기하는 동안 한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더니 경로당의 실내가 꽉 찼다. 김명옥 강사는 강당의 앞 벽면 위쪽 현수막에 걸린 타이틀처럼 신바람이 났다. 현수막의 타이틀은 신바람 나는 풍물놀이라고 쓰여 있었다.



◇김명옥 풍물놀이 강사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풍물놀이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땡땡 쿵따쿵~ 땡땡 쿵따쿵~

장구 소리도 신명나게 두드리는 수강생들의 열기로 실내는 가득 찼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 역시 어깨가 절로 들쭉거리진 듯했다. 풍물놀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이다. 설이나 추석 때 집집을 돌면서 지신밟기를 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기는 마을의 잔치였다. 필자도 어린 나이에 어른들 풍물놀이패의 뒤를 따라다니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새롭다. 풍물놀이는 풍물굿이나 농악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금도 옛날의 풍속을 이어 가고 있는 군

업1리는 지신밟기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김명옥 강사의 첫 수업 시간이 끝난 휴식 시간에 오흥만 회장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노인회의 기금도 천만 원 가까이 풍물놀이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명절 때마다 지신밟기와 풍물놀이로 모았다고 한다.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원들을 돕는다고 한다. 옛 풍속을 지키며 마을의 화평과 마을 사람들의 화목을 이끄는 회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올해 옥수수 농사도 10여 가구가 서로 돌아가며 품앗이를 했다고 한다. 농촌의 일손은 외국인의 노동력을 많이 이용해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에 이웃 간의 품앗이로 농사일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고 있는 군업1리 마을은 우리의 옛 미풍인 품앗이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한다. 휴식 시간이 지나 이어지는 수업 시간에는 평소 기량을 보여주는 마술로 수강생들을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김명옥 강사의 이력은 화려하다. 체구에 걸맞게 씨름 선수로 강원도 대표로 활약했으며 조각가 그리고 시인으로 저술도 다수 있으며 민요도 가르치고 있어 다재다능의 인물이다. 수업의 중간마다 기분 전환 겸 그의 특유의 익살로 수강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배가시키기도 했다. 이번 신바람 나는 풍물놀이의 참관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명옥 강사의 수업에 느낀 내공과 열의를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오흥만 노인회장의 설명대로 지금은 고추 수확철이라 바쁘다고 한다. 진중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도 배움의 즐거움과 자신의 성취를 위해 어두운 시골길을 전등 불을 비추고 집을 향해 가는 모습이 펍 인상적이었다. 오흥만 노인회장의 이야기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 몹시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자신의 부인이라고 했다. 치매로 16년간을 혼자 돌보고 있다고 한다. 딸이 의료 사고로 죽은 후 충격에 쓰러졌으며 노인대학도 다니고 싶고 나들이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몸이 불편한 아내를 수시로 보살펴야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지친 삶을 위로받는 풍물놀이는 오흥만 노인회장 뿐이 아니라 힘든 농사일에도 시간을 내어 풍물놀이를 함께하는 노인회 모두의 위안일 것이다.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신바람 나는 풍물놀이는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에 갇힌 어르신들을 즐거움으로 여유로운 여가생활은 물론 소박한 행복으로 안내하는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명옥 강사의 신바람 나는 풍물놀이의 교육도 자부심이 크리라 여겨진다.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수제맥주 펍 (pub) “브라이트바흐 올몬테”



◇브라이트바흐 올몬테 전경과 내부모습.

머물기만 해도 힐링 되는 곳 자연을 머금은 브라이트마흐

주 소 강원 홍천군 남면 난터길 44-17
예약문의 033-432-8850
영업시간 12:30~21:30(정기휴일: 매주화요일)
홈페이지 <https://www.breitbach.co.kr>

촉촉이 가을비 내리는 날 수제맥주와 화덕피자로 소문난 펍(pub)을 찾았다.

홍천 둔지교차로에서 영서로 횡성 원주 방향으로 13km 가다가 시동리 방향으로 우회전 1.7km 이동하면 난터길이 나온다. 500m를 오르면 영문으로 'BREITBACH'라고 써있는 커다란 자연석 입간판과 입구의 문이 나타난다.

오르막과 경사가 있는 길을 차로 달리며 반신반의했던 마음은 유럽풍 웅장한 건물과 넓은 잔디밭이 나오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환호성이 터졌다. 이날은 비가 와서 실내로 바로 들어갔지만, 햇살 좋은 가을날에는 야외테이블이나 잔디밭 돛자리에 자리 잡는 손님들이 많다고 한다.

출입문으로 들어서니 널찍한 테이블과 OLMONTE(올몬테)라고 쓰여진 대형화덕이 있는 주방이 오픈되어 실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브루어리(맥주공장)의 내부 시설이 보이면서, 맛은편 유리벽 너머에는 푸른 잔디가 맥아향과 함께 시원하게 자연을 머금고 있다.

수제맥주 바이젠과 고르곤졸라 화덕 피자를 주문해놓고 나서, 브라이트바흐 브로이의 성혁제 총괄이사와 마주 앉았다. 회사 창립 과정과 독일어로 된 상호(BREITBACH OLMONTE)의 뜻, 그리고 수제맥주 제조공정과 맥주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대형업체의 일반맥주와 차별화

브라이트바흐(BREITBACH)는 (주)생그린식품의 자회사로, 기존 생수공장에서 수제맥주 공장으로 2016년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

BREIT는 독일어로 “넓은”, BACH는 “내”라는 뜻으로 “홍천”을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느릅나무 언덕이었던 유치리의 지명을 빌어, 이태리어로 느릅나무(올모,OLMO)에서 착안하여 올몬테(OLMONTE)

라는 상호가 탄생된 겁니다.

브라이트바흐(BREITBACH)의 수제맥주는 태백산맥의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지하 250m 천연암반수를 양조 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독일 Doemens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맥주 제조 설비를 30년 이상의 맥주 양조 기술을 연마한 Diplom 브루마스터의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국내 최고 품질의 수제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농업기술원과 홍천 소재 브라이트바흐 브로이와 공동으로 우리 토종효모와 지역농산물로 만든 수제맥주 개발에 성공해서 “홍천”이라는 상표출원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제맥주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할 수 있어서, 독특한 맛과 향으로 창의적인 신제품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대형업체의 일반맥주와는 차별화가 있다고 봅니다.

유학시절 접했던 수제맥주의 다양함을 브라이트바흐에서

유명한 양조장이 많은 미국 미시건에서의 유학 시절, 곳곳마다 유명한 수제맥주 집이 있어 골라먹을 수 있는 신세계를 접하게 됐다는 성혁제 총괄이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고 본인이 그 시장에 투입된 것이 흥미롭다고 말한다.

또 맥주를 커피 마시듯 가볍게 즐기는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편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그와 브라이트바흐의 목표라고 말했다.

2021 WBA(World Beer Award, 영국 맥주 평가기관)에 수제맥주를 출품해서 3개 제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슬며시 자랑 또한 잊지 않는다. 투명함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경영을 추구하며, 작은 물방울이 바다에 이르듯 작지만 큰 뜻을 맥주에 담아 수제 맥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다.

올몬테를 더욱 빛나게 하는 다양한 메뉴들

수제맥주의 종류로는 필스너, 바이젠, 골든에일, 스타우트, IPA 등이 있으며 3~4천원 가격대이고, 안주로는 여러 종류의 화덕피자와 직접 육가공 한 다양한 메뉴들로 올몬테를 빛나게 하는데 충분히 보였다. 2인 이상의 테이블은 플래터 메뉴를 주문하면 맥주 한두병이 서비스로 나간다.

그밖에 커피와 음료를 너른 잔디밭 돛자리와 야외 테이블에서 즐길 수 있어 패밀리 손님들도 많이 찾는다고 한다.

보리 향수에 젖은 느릅나무 언덕

올몬테 펍(pub)은 맥주와 잘 어울리는 독일식 수제 소시지와 이태리 화덕에서 직접 구운 수제 피자를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브라이트바흐 브루어리에서 만들어진 프리미엄 수제 맥주를 가장 신선하게 맛볼 수 있는 유치리 올몬테(OLMONTE)에서, 그 옛날 느릅나무 언덕의 향수에 젖어 맥아의 향에 푹땀 빠져보고 싶은 가을이다.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천차만별인 앱 필요한 용도 사용, 스마트한 삶 살기

앱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돌아가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스마트폰 앱 슬기롭게 사용하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아마 대부분 사람이 하루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스마트폰으로 마감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경우와 횟수가 많아졌다. 정확한 용어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지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어플이라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앱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새로운 앱이 등장할 정도이며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앱은 수백만 종류 이상이 된다. 이들 앱 마켓에서 내려받는 앱은 유료도 있지만 거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의 앱을 우리의 실생활에 맞게 어떻게 잘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금융 관련 앱

은행 업무 보기가 간편해진 요즘이다. 이제 거의 모든 은행 업무는 비대면이 가능하고 바쁜 일상에서 앱을 활용한 은행 업무는 필수적으로 되었다. 은행 앱을 통해 예·적금 조회는 물론, 이체와 출금, 공과금 납부, 자신의 계좌 관리, 자산 관리, 카드와 연동, 금융상품물을 통한 예·적금 들기 및 펀드 가입하기, 외화 입출금 및 예금 등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예·적금의 이율도 높아지며, 외화 환전에도 우대 환율을 적용받으니 이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카드 앱도 깔아두면 유용하다. 매월 카드 결제금액을 그래프로 보며 비교할 수 있고, 실시간 카드

승인내역을 체크할 수 있으며, 카드이용분석을 통해 나의 소비패턴을 알 수도 있다. 이벤트를 활용한다면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독자라면 거래하는 증권사의 증권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니 편리한 주식 거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증권 앱은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예·적금, 외환 거래도 할 수 있다.

지식의 보고(寶庫) 앱

스마트폰은 가히 거대한 도서관이자 백과사전이다. 손쉽게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 검색어만으로도 필요한 지식을 얻는다. 'YouTube' 앱도 알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때나 소중한 정보를 얻을 때 모든 이가 사용하는 국민 앱이라 할 수 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제공하여 더욱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거대 담론에서부터 생활의 소소한 정보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세계 70억 명이나 되는 무한한 지식 활용자들이 있어 수시로 업로드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키워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의 욕실 세면대가 고장이 났다면 YouTube에 '세면대'라는 간단한 키워드만으로도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동영상을 접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분야에나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은 법이다. 하지만 가짜 정보도 업로드 된 경우가 많아 가려서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한 게 단점이다. 그래도 실보다는 득이 크다. '팻빵'이란 앱도 들려주는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수많은 카테고리 속에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필요한 키워드만으로도 우리가 모르는 지식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교통 관련 앱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많다. 이미 철도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매표소를 이용하는 승객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60대 이상의 장년, 노년층은 매표소에서 줄을 서는 경우가 많다. 이제 '코레일톡'이라는 철도 이용 앱과 '시외버스티머니'라는 버스 앱을 깔아보자.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건 노선만 있다면 앱을 통해 미리 원하는 출발 시간대와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고 표를 예매하여 매표소에서 줄을 서는 수고로움과 미리 철도역이나 버스터미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참으로 편리한 앱이다. 택시를 탈 때도 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택시는 필요한 때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카카오T'라는 앱을 활용하면 현재 우리가 위치한 반경 가장 가까운 곳의 택시를 탈 수 있다. 앱을 열고 현 위치, 도착 위치를 등록하고 결제까지 하면 여러분 곁으로 오고 있는 택시의 모습도 스마트폰에서 보인다. 이 앱은 택시 타기 외에도 대리운전, 택배, 항공, 버스, 기차 등 여러 이용 항목이 있다.

외국어 공부 관련 앱

현대인들의 외국어 학습 욕구는 상당하다. 공부할 수 있는 곳과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보니 사실, 문제는 학습자의 열정과 노력일 것이다. 이때 '듀오링고'라는 외국어 학습 앱을 깔아보자. 우리가 흔히 배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외에도 배우고자 하는 어떤 언어에나 접근할 수 있다. 이 앱은 학습자를 질리게 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목표 언어 습득을 가능케 하는 콘텐츠를 담고 있다. 외국어 습득은 사전이 필수적인데 '듀오링고' 앱 옆에 '네이버사전'이나 구글의 '번역' 앱을 같이 깔아두면 수시로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 한국어 검색으로 목표어를, 목표어 검색으로 한국어를 알 수 있고 스피커 모양 버튼을 눌러 발음을 들을 수 있으며 활용 예문도 풍부하게 나온다.

실생활 관련 무궁무진한 앱

이미 언급한 대로 수백만 가지 앱을 모두 이용할 수는 없다. 그래도 생활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구가 있게 마련이다. '케이웨더날씨'의 기상 앱, 메모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컬러노트', 일정 관리의 '캘린더', 낯선 곳에서 활용하기 편한 지도 앱인 '네이버지도'나 구글의 '지도' 앱도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앱이다.

물론 같은 용도라도 앱의 명칭이 천차만별이다. 각자가 자주 사용하여 익숙한 앱이 최고의 앱이다.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다 보니 생활마다 필요한 앱들을 스마트폰에 깔아두고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홍보&참여

고철모으기 프로젝트

고철모으기 프로젝트 “12월의 기적 만들기 프로젝트”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다함께 극복하고자 지난 9월초부터 복지관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철모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홍천군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고철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복지관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이 나눔 실천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지역 내 홀몸어르신에게 진정한 나눔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철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고철모으기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모집물품	고물, 고철
모집시기	9. 1~모집시까지, 매주 목요일
참여대상	복지관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 누구나
목표수량	2,000kg
참 여	홍천읍 및 면지역 소외계층 어르신의 소원물품을 상담방문 시 접수 받아 12.28(화) 소원물품 지원
문 의	Tel) 033-430-8700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약육강식의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도 종족번식을 위해서는 사명을 다한다. 특히 우월하고 우세한 2세를 만들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수단과 방법으로 종족 번식을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물에 영장임을 자처하는 사람은, 명석한 지능으로 최첨단문명을 이룬 인공지능시대를 열었지만, 무한경쟁에 살벌한 질주와 행복추구의 욕구는 종족번식에 대한 사명은 뒤로 주춤 밀리는 듯하다.

땀과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작물을 잘 키우고, 제품을 잘 만들어 내기위해서

연구와 실험으로 보다 견고하고 편리하며 위험하지 않고 값어치를 다 할 수 있는 작물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고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한날 휴지 한 톨이라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일지라도. 심혈을 기울이고 세심한 부문까지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고 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사람을 만드는 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후세를 이어나갈 자식을 갖는(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사명일진대 못사람들은 그렇게 신중하지 않고 성욕본능에 의하여 일을 저지르고 있거나 얕은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대한 게르만민족이라고 자부하는 독일 사람은 자신들의 2세를 위해서 기분이 좋지 않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부부가 잠자리를 삼가 한다고 한다.

우리의 조상도 후손의 번창을 위

해서 각별하게 지켜왔던 불문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식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배필을 구하는데 상대 가정에 근본을 중시하여 양가에 가정 상황이 적합하면 매과가 다리를 놓았고 양가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혼을 하였다.

결혼식 날 역시 좋은날 좋은 때로 택일하고 가족 친척친지와 마을

사람에게 알리는 결혼식의 예를 올렸으며, 태어날 후세를 위해서 신랑신부의 합방 역시 좋은 날 좋은 시간을 택일하여 합궁토록 했다.

또한 귀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백일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듯이 자식을 갖기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특히 임신 중에는 태교에 힘써 옳지 못한 행동이나 나쁜 마음도 갖지 않고 흥한 것은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탄생하게 된 서자(庶子.후실이 낳은 자식)나 서얼(庶孽.노비가 낳은 자식)은 나라에서 공직자를 뽑기 위해서 행하는 과거시험에 응시자격도 안주었던 시대도 있었다.

현대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인권 평등모독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시위하고 탄핵하였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공직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사람 역시 씨앗으로 종족을 이어간다. 흔히 말하는 유전자(DNA)와 환경이 좋아야 좋은 아이가 태어나서 바르게 자라 사람으로 되는데 이것이 선천적이라면 후천적으로는 바른 교육을 시킴으로서 사람으로 완성 되는 것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두어들인다.”

옛 속담에도 이르듯이 애정으로 낳고, 사람 되게 키우고, 인성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